

中國 集安에서 확인한 고구려의 얼

작년 여름에는 백두산과 중국 의 용정·훈춘지역을 중심으로 한 두만강유역을, 그리고 금년 여름에는 중국의 단동(원명은 안동)·집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압록강유역을 다녀왔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여 각각 동·서해로 흘러가고 있으니 그야말로 두만강에서 압록강까지 육로로 횡단한 셈이 되었다. 작년의 여행은 동북아경제권에 관한 학술탐방이었고, 금년의 여행은 발해(황해) 경제권에 관한 학술탐방이었다. 이러한 두차례에 걸친 두지역에 대한 학술탐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던 사실은 그곳에는 분명히 우리조상들의 얼이 아직도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이었다.



尹基官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두만강과 압록강의 차이

북한의 남양시가 바다다보이는 중국 도문시의 두만강유역에는 고기잡이하는 동네사람이 한두명 보이기는

했으나, 고기가 잡힐 것 같지는 않았다. 세계사용으로 말미암은 듯한 거품이 상당한 정도로 떠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폐수라기 보다는 생활폐수이었고, 그 원천은 중국측으로 보였다.

또한 도문시에서 훈춘지역에 이르는 두만강의 상·하류는 모내기할 때처럼 바지만 건너붙이면 북한땅을 얼마든지 밟을 수 있을 정도로 수심이 낮았다.

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은 DMZ 근처는 무슨 철천지 원수지간처럼 이중삼중으로 철조망을 쳐놓고, 그것도 양에 안착는지 중무장한 병사들이 눈을 부라리고 총칼을 맞대고 있는데 반해서, 적어도 그곳 두만강변은 중국인 경비원이나 북한병사는 물론이고 철조망 하나 보이지 않았다. 최소한 중국측은 분명히 아무런 경비가 없었다. 물론 북한측 두만강변 저쪽 나무숲속에는 철저한 봉쇄조치가 내려져 있으리라 예상은 되지만, 적



중국 단동의 유원지 선착장에서 북한의 신의주를 바라다보며 찍은 사진. 중국측 강변에 세워놓은 많은 자전거가 눈길을 끈다. 원래 중국에서는 자전거가 일반 교통수단이므로 12억대의 자전거중 일부라면 이해가 된다. 철교중 북한쪽은 한국전쟁때 폭파되어 교각만이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일러주고 있다. 좌측에는(보이지는 않지만)현재 이용되고 있는 철교가 있다.

어도 눈에 띄는 긴장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쪽에서 북한쪽으로 들어가는 그야말로 반바지만 준비하면 충분할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비록 외형적일 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민족끼리는 그렇게 평화스럽게 지내면서 같은 민족끼리는 어찌해서 이다지도 불편한 사이가 되었을까?

이러한 두만강변의 분위기와는 달리 압록강은 수심이 매우 깊어 강물이 새까맣고, 홍수진 뒤처럼 수량이 엄청나게 많았다.

백두산에서 발원하여 황해쪽으로 흐르는 압록강의 길이가 약 790km라고 하니 약 521km의 두만강보다 훨씬 길다. 압록강이라는 이름은 고구려가 생긴 후부터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압록강 하류(압록강 철교근처)에는 고려말기 이성계가 요동정벌길에서 回軍한 것으로 잘 알려진 위화도라는 섬이 있다. 당시 이성계(右軍都統使)가 1388년 5월에 우왕의 명령으로 요동을 정벌하기 위하여 요동정벌군대를 이끌고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까지 왔다가 四不可論을 내세워 왕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그 위화도에서 국내로 돌려 회군했다는 역사상 유명한 그 섬이다.

신비의 세계, 백두산 천지

배달민족이면 누구나 가보고 싶어 하는 백두산과 그 천지. 중국은 개혁·개방에 발맞추어 외화획득을 위하여 재빠르게도 백두산 입구에서 꼭대기까지 산등성이를 깎아 자동차용 도로를 닦아 놓았다. 그로 말미암아 세

계적인 우리의 산을 버려놓고 황폐화시키고 있다. 차라리 산입구에서부터 등산길을 만들어 걸어서 오르는 것만 허용했다라면 좋았을 것을…….

입구에서 장백폭포 위까지는 걸어서 30~40분이면 충분하였고, 거기서 천지까지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이렇게 등산길을 마련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아무데나 쓰레기를 마구 버려 오염시키겠지? 그러한 무모한 등산객들 때문에라도 차를 타고 오르는 것만 허용해야 할 것 같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를 타고 산꼭대기에 오른다는 것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백두산의 일부는 중국 소속이고, 나머지 일부는 북한 소속이어서 중국인들은 장백산이라고 다르게 부르고 있고, 그 아래의 폭포도 장백폭포라고 부르고 있다. 언제부터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남북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바로 우리산, 백두산을 되찾는 일이라.

장백산 입구에서는 중국측이 지정된 자동차로 이용해야 한다. 물론 유료이다. 자동차로 40분 정도 오르면 천지 근처에서 하차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약 50m만 가볍게 오르면 눈앞에 천지가 나타나게 된다. 산이 하도 높아(해발 2,744m) 기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서 장백산은 여름철에만 개방하고 있다. 여름철 이외에는 길이 얼어 자동차가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가 작년에 첫시도를 했던 백두

시간 잘 지키는 기차

북경에서 심양까지는 비행기를 이용했지만, 심양에서 단둥까지는 기차를 이용했다. 인구가 많아 많은 여객을 한꺼번에 실어나르기 위해서인지 기차의 길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었지만, 속도는 무궁화열차 이상으로 빨랐고, 시간도 제법 잘 지키고 있었다.

기차의 내부는 우리와 큰 차이는 없었으나, 차이가 있다면 승차권 소지여부의 검표를 역입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열차의 각 객량마다의 입구에서 역무원이 한사람씩 가로 막고 일일이 검표한다는 점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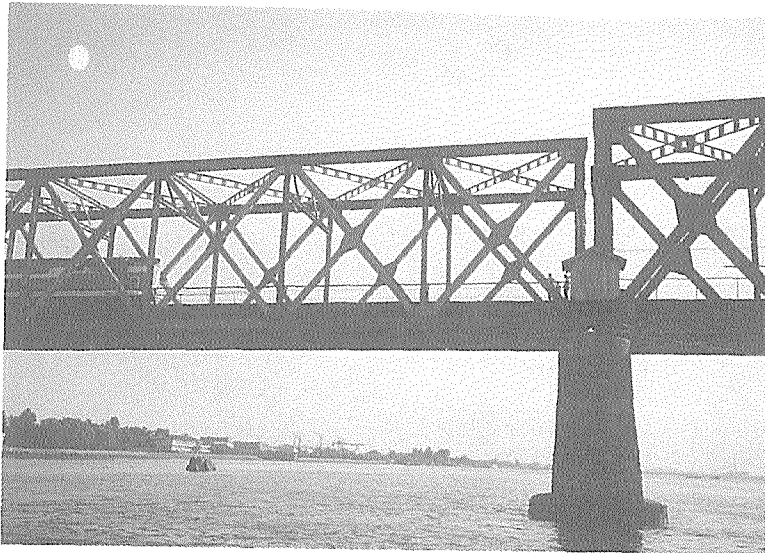
심양에서 단둥까지 달려오는 동안 창문 양쪽으로 내다 보이는 山勢는 우리나라와 유사했다. 들판에 깔린 옥수수밭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인구 12억명이 먹으려면 그 정도는 지어야 하는 것일까? 그야말로 엄청난 양이었다.

떡시루 모양의 아름다운 돌산이 펼쳐질 때에는 미국의 그랜드캐년을 방불케 했다. 더욱이 압록강지류의 강변을 따라 전개되는 기암절벽은 금강산 해금강을 능가할 정도였었다.

압록강철교는 살아있고

중국 단둥시는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보고 있는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이다. 압록강을 따라 황해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상선이 드나드는 대동항이 있다.

단둥시는 북경이나 심양과 같은 대도시가 아님에도 유달리 키도 후리후리하고 멋있는 미녀들이 많았다. 후



현재 이용되고 있는 압록강 철교. 북한측에서 중국측으로 기차가 들어오고 있다. 철교 중간부분에 초소와 경비원들이 보인다. 철교밑으로 보이는 곳이 북한 신의주 강변이다.

산 천지와와의 만남. 지금은 민간용 자동차로 대체했다지만, 그 때는 인민군용 짐차를 이용하게 되었었다. 설레는 마음으로 천문봉을 오르니 이게 웬일인가! 안개가 자욱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가 천지와 혼합되어 칠흙같은 시골의 한밤중 같았다. 그 때의 안타까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으랴. 안내원이 바로 저 앞쪽이 천지이고, 그 뒤가 북한의 백운봉이라고 귀뜸해 주었지만, 그것은 고작 굴속에서 속삭이는 말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비바람까지 세차게 불어 꼭대기에서 있다가는 시커먼 천지낭떠러지로 떨어질 것만 같았다. 천지를 찍기 위해서 힘겹게 가져온 망원렌즈까지 달린 카메라였기에 카메라를 가슴에 꼭 품은 채로 쫓지만 바위틈 바구니에서 천지신령

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 덕분에(?) 쭈구려 앉아 비바람을 피한지 20분쯤 지나니 날이 밝아지면서 비바람도 멈추었다.

연극이 시작될 때 장막이 서서히 걷히듯이, 백운봉쪽에서부터 안개가 서서히 반대편쪽으로 걷히면서 살포시 속살을 드러내는 천지. 마치 새색시가 결혼 첫날밤에 하얀 드레스를 스르르 흘러 내려 뽀얀 살을 드러내는 듯한 자태 같았다. 참으로 승엄한 순간이 시작되었다. 그런 와중에도 안개는 걷혔다, 졌다 하면서 자기의 온몸을 한꺼번에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는 듯 싶었다. 그러다가 실수(?)로 전신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아무말도 하지 못하고 넋을 잃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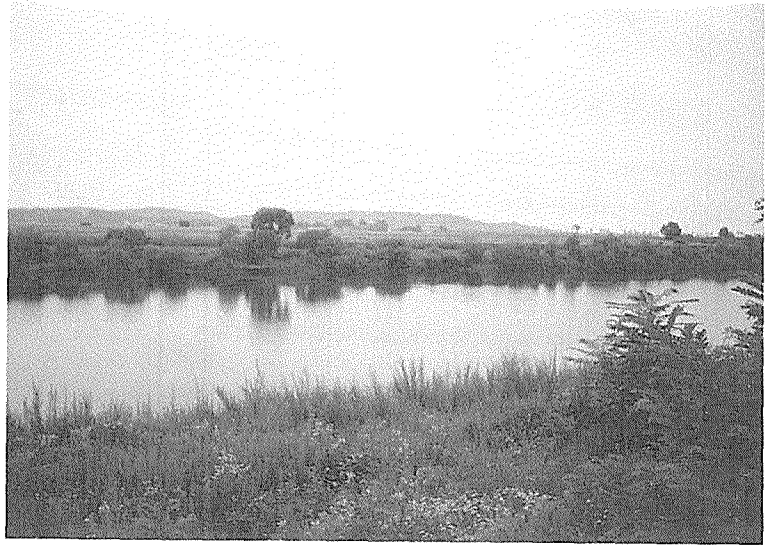
질후질한 촌으로만 추측했던 나의 편견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다. 거리도 깨끗한 편이고 호텔도 제법 좋고, 행인들의 옷차림새도 꽤나 세련되었다.

단동의 선착장에 도착하니 북한의 신의주가 건너다 보였다. 용모양의 유람선을 타고 신의주강변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신의주가 고향인 실향민들은 다소나마 한을 풀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신의주 선착장에도 유람선이 있었는데 그 배에는 다음과 같은 구호가 큰글씨로 부착되어 있었다. 「항상준비! 조중 두나라 인민들 사이의 피로써 맺어진 전투의 친선단결 만세」 우리가 탄 유람선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유람선이 선착장에 정박해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관광객은 보이지 않았다.

두개의 압록강철교중 하나는 한국전쟁때의 폭격으로 북한측의 교각만이 탄흔이 자욱한 채 강위에 거연히 솟아있다. 끊어진 철교와 토치카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전쟁의 역사를 묵묵히 가르쳐 주고 있었다.

또하나의 철교(946m)에는 기차,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고 걸어서 오가는 행인들도 제법 있다. 그 철교 중간쯤에는 초소가 있어 경비원들이 오가는 행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었다. 이 철교를 통하여 중국-북한간에 변경무역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철교를 통한 관광코스(단동-판문점)도 개발되어 성행중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압록강철교는 중국-북한의 정치·경제·문화를 긴밀히 연



단동에서 집안으로 갈 때까지 전개되는 압록강지류의 아름다운 전원풍경이다. 깨끗한 강물과 푸른 북한쪽 들판이 멀리서 보이는 북한의 가옥들과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를 방불케 하고 있다.

결시켜 놓고 있어 분명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화, 압록강지류

단동을 떠나 광개토왕비가 있다는 집안으로 향했다. 자동차를 이용했는데, 문경새재(鳥嶺)보다 더 높은 고개를 5~7개는 넘는 듯했다.

압록강변과 그 지류를 따라 집안으로 향하는 길은 우리나라의 경춘가와 비슷했으나 그 아름다움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이다. 지류인데도 두만강보다 더 깊고 풍경도 훨씬 아름다웠다. 차라리 한 폭의 동양화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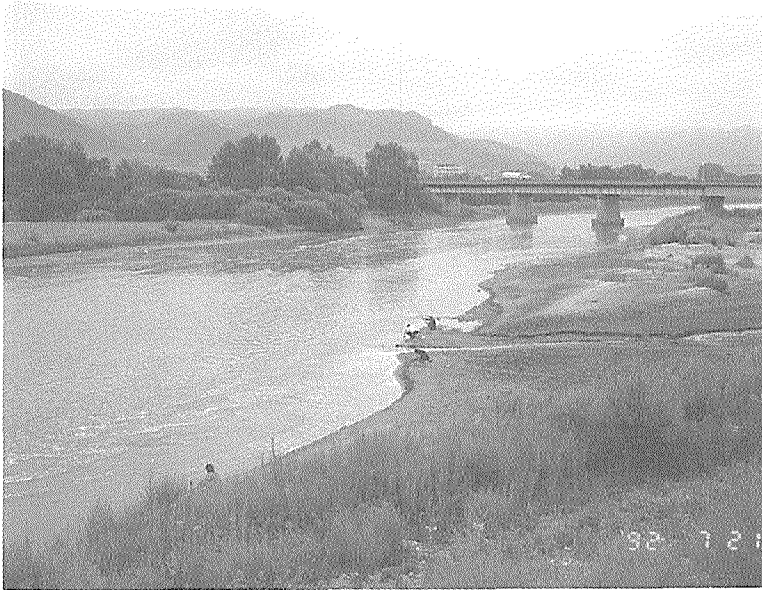
강바닥이 흰히 들여야 보이는 강물, 옥수수가 탕탕 영그른 들판, 그 강변에는 미류나무들이 줄지어 서있고,

멀리서 바라다 보이는 북한 가옥들은 초라하지만, 매우 평화로워 보였다. 그 아름다운 동양화들을 모두 카메라에 담아 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곳에도 중국측 경비원은 한명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북한측 강변에는 띄엄띄엄 사복차림의 경비원들이 서 있었다.

우리조상의 일이 서린 集安

1909년 간도협약에 따라 영원히 잃어버린 우리의 땅 만주·간도. 하지만 거기엔 우리 민족의 후예들이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가! 마찬가지로 중국의 압록강변 도시 집안에도 그 옛날 고구려시대의 문화가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

집안에는 오희분묘(五嵗墳墓)가 5개 있다. 묘의 모양이 투구(鬚) 모양



중국의 도문시와 북한의 남양시를 잇는 철교이다. 철교의 국경표시를 색깔로써 나타내고 있다. 철교중간을 중심으로 경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두 만강 상류인 이 철교아래쯤에서 고기잡는 동네사람들이 보이고는 있으나 고기가 잡힐는지 걱정이다. 생활폐수가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리고 각 묘가 누구의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중 일반인에게 개방되고 있는 묘는 오회분 5호묘이다. 최근 오회분 4호묘의 내부벽화가 신문지상을 통하여 특별공개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5호묘의 내부를 보면 천정에는 神仙, 羽人, 飛天을 그리고 사면의 벽에는 동벽의 청룡, 서벽의 백호, 남벽의 주작(朱雀), 북벽의 현무(玄武)가 그려져 있다. 1500년전의 고구려 벽화가 아직도 선연한 색상과 형태로 남아있어 마치 현대화를 보는 것 같다. 여름철 바깥과의 온도차이로 인한 結露때문에 이슬이 물로 변하여 벽화의 표면이 번들번들거리고 심지

어 어떤 곳은 물이 줄줄 흘러내리기도 한다.

도대체 어떤 특수한 접착제를 만들어 사용했기에 그러한 약조건하에서도 돌에다 칠한 색채가 떨어지지 않고 1500년 동안이나 붙어 있던 말인가? 천도 아니고 종이도 아닌 돌위에다 그린 그림이 어떻게 해서 오랜 세월동안 생생하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색채가 하도 선명하여 39마리의 용들이 살아 꿈틀거리는 것만 같았다. 정면 위쪽에는 황금이 박혀 있어서 묘내부를 밝혀 주었다는데, 일본이 만주를 침략했을 때 몰래 빼가서 지금은 흔적(구멍)만 남아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집안 용산기슭에는 고구려 제 20대 장수왕(광개토왕의 맏아들) 장

군총이 있다. 높이가 약 12.4m, 맨 밑 기단의 한변의 길이가 약 31.5m 가 되는 정방형으로서 몇층짜리의 금자탑(피라미드)을 연상시킨다. 이 웅장한 고분의 묘실에는 동서로 두개의 棺床이 배열되어 있다. 이 고분의 맨 아래 기단에는 각 사방면에 2m 정도 높이의 대형돌판이 지면에서 비스듬히 한면에 3개씩 높혀 있다. 이 대형돌판의 역할은 아마도 피라미드 형으로 쌓아올린 돌벽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하는 버팀돌이었으리라. 이 장군총 맨 위에 오르면 북한의 만포시가 한눈에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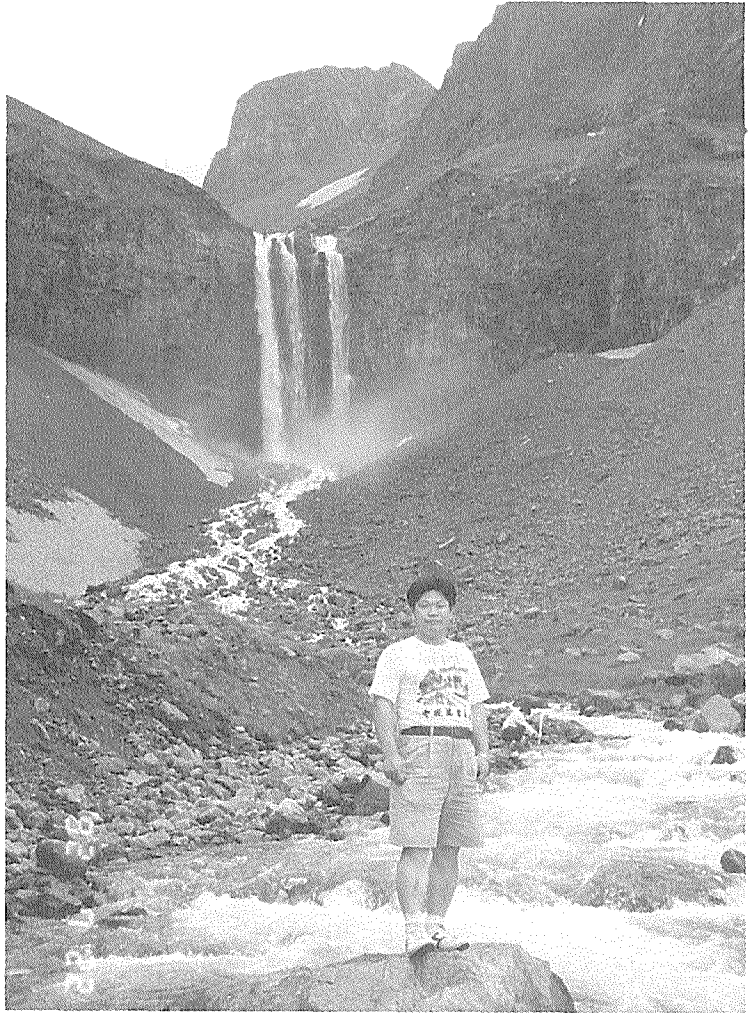
집안에는 또한 고구려 19대왕 광개토왕의 비석도 있다. 광개토왕의 원명은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으로서 우리는 광개토왕이라고 부르지만, 중국은 호태왕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하튼 이 비석은 광개토왕이 죽은 후 그 맏아들인 장수왕2년(414년)에 건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높이 6.6m의 자연석에 1700여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는 그 비석이 최초로 발견된 것은 1882년, 그 깊은 숲속이었다고 한다. 물론 지금은 그 비석의 원래 위치에서 정자를 세워 풍파를 막아주고 있다. 그 비문에는 고구려의 기원과 건국의 신화건설, 광개토왕의 일생의 업적, 그리고 묘지를 지키는 제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두만강변과 압록강변에는 아직도 우리조상의 넋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우리 일행은 집안을 끝으로 이번 여행일정을 사실상 마치면서 집안에서 通化, 통화에서 야간열차로 심양

백두산 天地의 “風口”라는 곳에서 천지의 물이 아래로 흘러 내려 장백 폭포가 된다. 이 장백폭포의 물이 두만강물의 원천이 된다고 한다. 이 폭포 아래에는 온천이 있다. 폭포근처 땅속에서 솟아나는 물이 하도 뜨거워서 그 물로 계란을 삶아 파는 상인이 있을 정도이다.

으로 향했다. 북경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이다.

필자는 이번의 황해경제권에 관한 학술탐방을 통하여 우리조상들이 남겨놓은 역사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속에서 필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심오하게 깨닫고, 다짐하듯 입술을 지긋이 깨물었다. ♣



■ 용어풀이 ■

원유 바터 거래 (oil barter trade)

상품수입대금을 원유로 지급하는 거래. 이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동액으로 하여 대금결제를 생략하는 바터 무역을 본딴 거래방식이다. 근래의 원유 가격의 하락, 수요의 저조 등으로 대부분의 산유국에서는 재정상태

가 악화되어 환관리나 물자의 수입제한 외에 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하락하면 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OPEC는 자숙하려 한다.